

# 가정의학과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윤방부

**가** 정 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넘어 15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가정의학이 무슨 과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은 물론 의료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서도 드문 듯 합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하면 누구나 아, 눈을 보는과, 귀, 코, 목구멍에 관련된 질병을 진료하는 과 하고 선뜻 알아차리고, 소아과하면 그 연령 기준이 15세라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도 어린애들을 진료하는 과라는 사실은 모두압니다.

산부인과는 임신, 출산 혹은 부인들에게만 생기는 질환들을 다룬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방사선과는 엑스선이라는

현대 과학의 산물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가끔은 치료도 하는 과라는 것도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 가정의학과는 무슨 과일까요.

그럼 가정 의학과는 무슨 과일까요. 이름 그대로 가정을 다루는 과일까요? 얼추 30%는 맞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가정 의학과가 가정을 다루는 과라는 생각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의료의 전문 과목의 명칭이라는 것은 안과, 이비인후과처럼 의사들이 진료하는 신체 기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소아과, 산부인과처럼 주로

다루는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소아라든지, 부인들이라든지—으로 되어 있거나 그도 아니면 방사선과처럼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수단의 이름으로 그 명칭을 삼고있는 것인데 가정 의학과의 가정이라는 것은 신체 기관 명도 아니며 주로 다루는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도 아니고—왜냐하면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가정 의학과 의사라기 보다 가정 상담소의 상담원이 더 어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진단 수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 의학과의 출발점은 신체 기관도,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도 진단 수단도 아닌 어떤 신념 체계인데서 일반인들의 가정의학과에 대한 몰이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 의학과는 어떤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 의료 과목입니다.

그럼 가정 의학과를 있게 한 그 신념 체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환자에 대한 폭 넓은 접근, 코는 내 전문 과목이지만 눈은 아니니 판데 가보시오. 하거나 어린애는 내 소관이지만 아픈 어른은 보기만 해도 겁나니 얼른 옆 집으로 가세요 하는 법이 없이 즉 질병, 환자의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포괄적인 진료를 하고 둘째 환자의 건강과 질병을 가정이라는 문맥에서 파악하는 것, 쉬운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이 잦은 집 어린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주 아픈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역으로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족들이 기를 못피는 것처럼 환자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일원

이라는 전제에서 파악하는 것, 세째로 건강을 전인적으로 파악하는 것, 명치 끝이 아픈 사람을 내시경을 해 보고 난 뒤 아무 이상 없으니 집에 가 보시우 할게 아니라 이 환자의 배앓이를 일으킨 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 생긴 배앓이는 아닐까하고 환자를 육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파악하는 것이, 세가지 신념 체계가 가정 의학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고 의료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가정의학과의 역사적 배경은

신념 체계들이 의료의 새로운 전문 과목을 낳아 탄생케 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 의학과는 1969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도 미국의 역사적 배경인 것이지만 1979년 필자가 우리나라에 가정 의학을 도입할 때의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고 또한 가정 의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 탄생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의사가 곧 약이다>라는 미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는 반쯤 낫는다는 얘깁니다.

<마이크로 특공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미립자만큼 작아진 의사들이 캡슐 속에 들어가 환자의 입을 통해

환자의 썩은 내장에 침투하여 병원균과 싸운다는 공상 과학 영화입니다. 이처럼 의사가 곧 약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의사의 얼굴을 쳐다 보기만 해도 아픈 배가 다 낫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에는 할머니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들이 공부 많을수록 해도 흉의사만 한 명의는 없다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흉의사라는 분은 의과 대학을 졸업하신 것 외에는 수련을 받아 본 적도 유학을 다녀 오신 적도 없으셨지만 왕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다니시면서 명의라는 호칭을 들으셨으니 웬 일 일까요?

〈의사가 곧 약〉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분이 아니셨을까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도 옛날에는 흉의사 같은 분이 많았나 봅니다.

TV에서 〈윌튼네 사람들〉이나 〈초원의 집〉같은 프로에서 흉의사 같은 의사가 가끔 등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흉의사 같은 분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돌팔이 의사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옛날 미국의 의과 대학 혹은 의학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던 까닭에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는 의학 강습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0년 미국 정부는 플렉스너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의과 대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는 모두 폐교시키고 의과 대학 입학 자격도 학부를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재의 미국 의과 대학의 틀을 갖추기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병원은 날로 비인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원처럼 무서운  
곳도 없지 않을까●●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의료가 대학 병원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인데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병원은 날로 비인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원처럼 무서운 곳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골 할아버지를 서울의 어느 대학 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부터 정신이 혼란스럽고 간신히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는데 밤새 굶어라고 하더니 입으로 하얀 물약을 마구 집어 넣고 빙빙 돌립니다. 기 죽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위암 같으니 수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은 무서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손길 같은 따스함을, 느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은 엄격한 대발이 아버지 같고 환자는 그 앞에서 찢절매는 대발이 꼴입니다. 보호자는 어떻게 됩니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물을라치면 피 좀 뽑아야겠으니 저리 좀 비켜요. 아니면 보호자는 좀 나가 게 세요라고 푸대접 받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의료 현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 단체와 소비자 단체, 몇몇 학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으니 의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1966년 미국에서는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보고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의에 비해 일차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너무 적다. 둘째 도시에 비해 시골의 의사 수가 너무 적다. 셋째 과학적이기만한 의학에 인간적인 진료가 결합되어야 했고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역으로 가정이 흔들리면 그 가정에 환자가 생기는 법이며 따뜻한 가정 속에서는 환자도 잘 낫는 법이니 환자를 가정에서 따로 떼어 치료할 것이 아니다.

제가 왜 굳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들먹이지 않고 미국 얘길 꺼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3년 뒤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정 의학과가 탄생하였고 필자가 1979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 환자에 대해 전인적 접근을 시도

가정 의학과의 탄생 배경을 말하면서 가정 의학과와 이념 몇가지를 벌써 말한 듯합니다. 환자에게 접근 시 질병의 육체적 측면만 보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전인적 접근을 한다.

환자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가정이라는 문맥하에서 진료한다. 환자의 성별, 연령, 질병의 종류, 신체 기관을 불문하고 포괄적 진료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가정 의학과 의사가 그렇게 전능하냐고 물으실지 모르나 통계에 의하면 모든 환자의 약 90%는 일차 진료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의학과는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가정 의학과의 특징은 한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 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처럼 생로 병사의 과정을 겪는 인간의 각 단계마다, 병이 없을 때는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 진단을 통해 숨어 있는 질병을 조기 발견합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진단을 내려 치료를 시작하고 말기 환자를 호스피스를 통해 돌봅니다.

가정 의학과는 가정을 진료하는 과라는 답에는 30점 밖에 줄 수 없다고 한 필자의 인색함을 이제 이해하시겠는지요? †

### 약력



'67 연세대 의대졸  
'75 미국 미네소타대

학 가정의학수련 및 경영학 수련.

'81-91 대한 가정 의학회 이사장.

'87, 93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92 대한가정의학 교육자협의회 회장.

저서로는 「가정의학」 「가정의학원론」 「오래살시다」 「임상가정의학」 등 다수.